



김경환의 탄탄(談談)대록

미중 1차 합의 : 중국은 무엇을 얼마나 살까?

15일 미중 1차 합의와 관련해 가장 궁금한 것 : 1차 합의가 최종 사인만을 남기고 있다. 12월 양측의 공식발표와 기자회견을 미루어 볼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수입 확대’ 관련 내용이다. 실제로 양측은 ‘지적재산권’ 부분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이며 ‘기술이전’, ‘환율’, ‘금융시장 개방’ 관련해서도 (중국측이 공개한 내용은 없지만) 무난한 합의 내용이 예상된다. ‘기술이전’과 ‘환율’ 관련 미국의 요구는 여전히 원론적이며 ‘금융시장 개방’은 중국이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살까? 양측은 ‘수입 확대’와 관련해 미묘한 ‘이견’을 보인바 있다. ①미국은 향후 2년간 2017년 수입액을 기본으로 최소 2,000억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수입하겠다고 합의했다고 공개, 중국은 수입 확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추후 공개 시사, ②양국 모두 공산품/농산물/에너지/서비스 분야 수입 확대는 동일하지만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 강조한 품목이 상이, 중국은 ‘첨단제품’ 및 ‘의료’ 부문 수입을 별도로 강조한 모습이다.

궁금한 부분은 실제 실행 내용이다. 중국이 미국측 주장에 합의했다고 가정할 때 향후 2년간 숙제가 만만치 않다. 중국측 수입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미 수입총액은 2,047억달러(8.6%/전체수입)이며, 상품과 서비스 수입액은 각각 1,509억달러(9.1%)와 571억달러(10.9%)이다. 이중 농산품은 213억달러(19.3%/전체), 에너지 63억달러(2.5%), 공산품은 1,201억달러(9.1%)이다. 향후 2년간 연평균 1,000억달러를 더 수입할 경우 연간 대미 수입액은 평균 대비 47% 증가한 3,000억달러에 육박하고 미국의 수입 비중은 8.6%에서 12.7%까지 상승한다.

우리는 몇 가지 가정을 통해 향후 중국의 실행 방식을 예상했다. 당사 예측의 기본적인 가정은 ①중국의 수입은 자급도가 낮고, 전략적인 대응이 용이한 농산물(미국 500억달러 요구)과 에너지(미국 비중 2.5%)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 ②공산품은 밸류체인 복잡성과 명분을 고려해 소수 첨단제품 집중, ③서비스는 지적재산권 지불(수입)의 확대가 불가피하나, 여행 분야의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의 기본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2020년 중국의 대미 수입 순증액은 ①농산물(대두/수산물)은 287억달러(YoY+116%), ②에너지(원유/LNG)는 264억달러(YoY+419%), ③공산품(전자/자본재/소재)은 342억달러(YoY+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2번 참고). 공산품 수입의 경우 동 시나리오 하에서 미국 비중이 9.1%에서 9.9% 상승에 그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경쟁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다만, 양국이 수급과 정치 등 변수로 공산품 수입에 집중할 경우 주요 수출국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현지에서 수입 확대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는 10대 품목(HS코드 기준)이 현재 수입 비중으로 확대될 경우 품목별 영향은 전자 > 기계 > 자동차/부품 > 항공 > 화학 순으로 크다. 한국은 전자, 기계, 화학 분야에서 중국 수입시장 내 Top 3 국가로서 하반기로 갈수록 영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Investment Strategy

China



중국/신용국전략 김경환
02-3771-7616
khstyle11@hanafn.com

RA 정진수
02-3771-3453
jinsoo87@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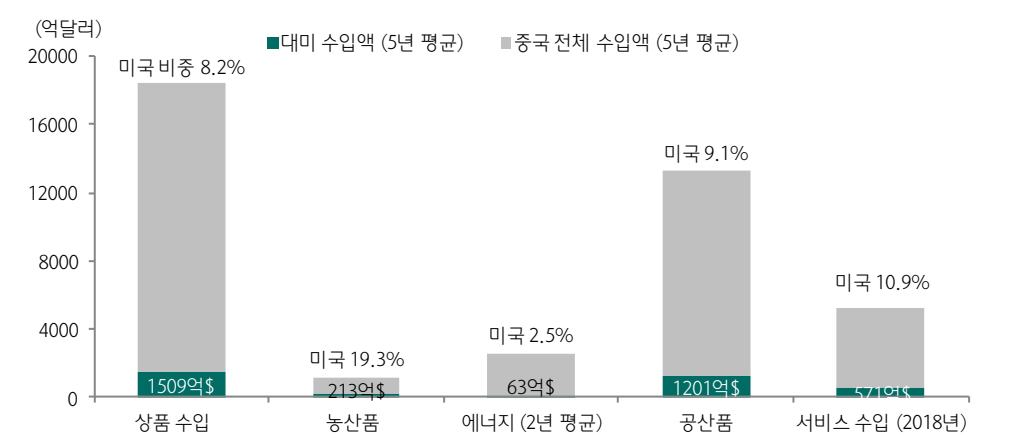
표 1. 1차 무역합의 관련 미중 양측의 공식발표 및 기자회견 내용

쟁점 사항	미국측 발표내용 (15일 서명식 이전)	중국측 발표내용 (15일 서명식 이전)
관세	· 2,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를 유지 · 1,2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5%→7.5%	· 미국 중국산 수입품 관세 단계적 철폐 동의 · 대중 미국산 수입품 관세 완화
통상	· 중국측 2년간 미국산 상품/서비스 수입 규모 2017년대 비 2,000억 달러 이상 확대 약속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에너지, 서비스 등) · 미국산 농산물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 · 중국측 당분간 미국산 수입 규모 증가세 유지	· WTO규정 및 시장원리에 근거해 중국기업의 미국산 수입 확대(에너지/농산물/의료/금융 등) · 중국내 필요한 첨단기술장비/부품 수입 확대 · 농산품(대두/돈육/밀 등) 수입 대폭 확대 · 구체적인 내용과 수입 규모는 향후 발표
지식재산권	· 합의문에 영업기밀/제약 관련 지재산/GPS/브랜드/불법 복제 관련 내용 포함	· 지재산강화, 영업환경개선, 시장장벽 완화 · 영업기밀/특허기간연장/불법복제품생산·유통, 악의적 상표 출원 금지 · 중국측 발표 내용이 미국측보다 더 구체적
기술이전	· 중국측 처음으로 강제기술이전 금지에 동의 · 소송의 투명성/형평성/정당성 보장 동의 · 외국기술 탈취 목적의 대외투자 자제	· 언급하지 않음
환율	· 중국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환율 투명성 강화	· 언급하지 않음
금융	· 미국 금융회사에 투자장벽/차별대우 금지	· 언급하지 않음
분쟁해결	· 합의 이행 매커니즘, 미중 분쟁 해결기구 설치	· 언급하지 않음

자료: USTR, 중국 상무부, 하나금융투자

그림 1. 최근 5년 평균 기준 분야별 대미 수입액 및 비중

최근 5년간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 비중 8.6%. 농산품의 미국 비중은 전체 평균 상회, 에너지의 비중은 평균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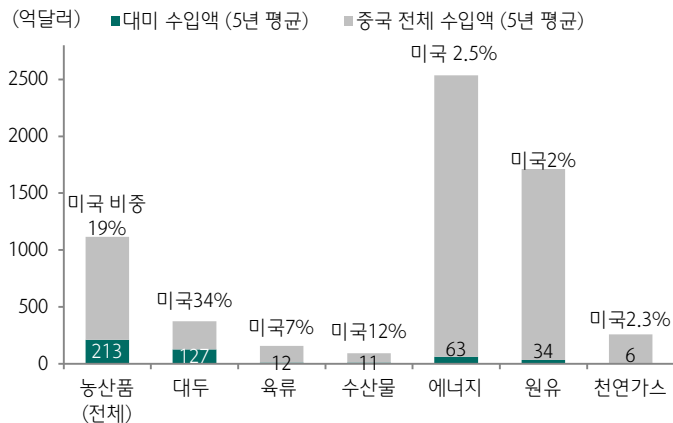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표 2. 1차 합의 관련 기본 시나리오 예상 : 농산품과 에너지 비중확대 우선 고려, 서비스와 공산품 적정수준 증가 가정

	*최근 5년 평균 (2015~2019년)			**1차 합의 미국측 요구사항 : 향후 2년간 2017년 수입액 대비 최소 2,000억 이상 확대				
억달러/%YoY%	중국 전체 수입액 (5년 평균)	대미 수입액 (5년 평균)	대미 수입 비중 (%)	대미 수입 비중 (2020년)	대미 수입액 (2020년)	2020년 순증액 (억달러)	2020년 증감율 (%YoY)	2020년 대미 수입액 가정
상품 수입 (전체)	18,413	1,509	8.2	▶ 12.8	2,372	863	57.2	-
농산품	1,116	213	19.3	▶ 44.8	460	287	116.4	미국측 요구 최대치 500억달러 (연평균 250달러 추가 수입)
에너지	2,535	63	2.5	▶ 12.9	327	264	419.1	미국 상품 수입 평균 비중 적용
공산품	13,286	1,201	9.1	▶ 9.9	1,585	342	32.0	농산품, 에너지, 서비스 제외한 잔여
서비스 수입 (전체)	5,258	571	10.9	▶ 11.9	628	57	10.0	최근 10년 평균 CAGR 적용 (지재권 증가, 관광/유학 감소 상쇄)
수입 총액	23,671	2,047	8.6	▶ 12.7	3,000	951	4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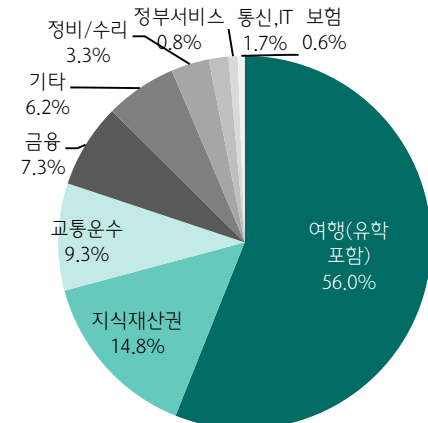
자료: 하나금융투자

그림 2. 최근 5년 평균 분야별 대미 수입액 및 비중 (농산품/에너지)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그림 3. 분야별 중국 대미 서비스업 수입 비중 (2018년 기준)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표 3. 향후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10대 유력 업종 및 관련 수입 비중 Top 3 국가

HS코드	HS품목분류	업종	중국의 전체 수입액 (억 달러)	미국산 수입 비중 (%)	미국산 수입 증가율 (2013~2018년, %)	중국 수입시장 비중 순위		
						1위	2위	3위
85	전기기기 및 부품	전자	4,500	4.2	(2.3)	대만	한국	일본
84	원자로/기계류	기계	1,715	9.6	3.8	일본	독일	한국
27	광물성 연료/석탄	에너지	2,565	2.0	46.3	러시아	사우디	호주
87	철도 외 차량/부품	자동차	783	17.6	4.5	독일	일본	영국
39	플라스틱 및 제품	플라스틱	691	9.6	2.5	한국	일본	대만
29	유기화학품	화학	552	6.3	0.1	한국	사우디	일본
71	진주/귀금속	비철금속	730	5.2	320.4	남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90	광학/의료기기	기계	997	11.8	3.7	일본	한국	대만
30	의료용품	제약	221	13.1	17.7	독일	프랑스	일본
88	항공기/우주선	항공/운수	274	56.9	5.6	프랑스	독일	캐나다
12	종자/과실(대두)	농업	424	31.3	(7.1)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자료: CBIC, Wind, 하나금융투자